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박꽃 이소영을 향한 계획 있었죠♪♪♪
교직에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대학시절 세례를 받으셨고 4 남매를 유아세례 시키셨지만 오랜시간 냉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야 제가 세례를 받은 카톨릭 신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학창시절은 성당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며 신앙을 키웠고,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성소주일 행사의 하나로 신학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수도회 리플렛이 계기가 되어 대학 졸업 뒤, 1988년 수녀원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랐던 전라도 광주에서의 생활이 수도회 파견 15년간 이어졌기에 가보지 못한 다른 지방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만수 6동 성당, '충주' 지현동 성당 그리고 현재 '서울' 세레나의 집 본원의 생활은 아브라함의 길 떠남의 의미를 새기고 다지는 기회가 되었고, 다양함과 다름을 체험하며 하느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1년간의 본당사도직과 은혜학교, 본원주방을 거쳐서 현재 수녀회 후원 은인을 관리하는 씨튼가족의 사도직에 이르기까지 29년째 수도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갈래의 길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시간들은 하느님 백성을 위한 필요를 위해 쓰였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앞장 서시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이 제가 응답할 수 있는 최선임을 체험합니다. 오늘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모습에 놀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 씨튼 가족으로부터 다섯 살 손자가 암으로 투병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가서 연도하고 다음날 장례 미사에 참석하며 가족들의 슬픔에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이의 젊은 부모가 수녀원을 찾아왔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부부는 수녀들의 기도와 위로에 감사하다며 감사카드와 함께 얼마간의 조의금을 아이 이름으로 기부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절망하고 있는 어머니는 만난 적 없는 수녀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도자인 저의 존재가 세상 안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나누는 작은 몸짓을 하느님께서 참 크게 쓰고 계셨습니다. 씨튼가족 사도직 3년째인 지금, 어머니이자 교육자로 사셨던 성녀 엘리사벳 씨튼의 삶과 영성을 나누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씨튼가족과 부부를 대상으로 피정을 하고 영성기도모임, 방문을 통해 하느님께서 저를 쓰시도록 맡겨드리려 합니다.



주님은 저를 구원의 꽃자리인 수녀원으로 불러 주셨기에, 이곳에서 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는 함박꽃 이소영 수녀입니다.





A long time ago! God already had a plan for me (this is the lyrics of a song)!! ♪♪ Hello Sisters! My name is Lee, So Young (I). I want to begin my story with my father. He was a teacher, and baptized when he was a college student. He had four children and had them baptized when they were little; however, he didn't go to Church for a long time. It was not until my middle school years that I realized that I was a baptized Catholic. I was very involved in many activities for youth in my parish such as teaching catechism to children. One day I visited a seminary, on a vocation day, with the parish children. This was a turning point for me that made me think of religious life. Receiving a brochure of our community from the Sisters there, I began to know our sisters and I came to enter our community in 1988.

I was born and grew up in Gwangju where the provincial house is located and fifteen of my ministry years were spent in Gwangju; therefore, I had a kind of dream to reach out to other places. At last my dream came true and I worked at parishes in Incheon, and Choongju. Now I am living at Serena's House in Seoul as Director of Seton Family. The years I lived in other cities gave me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braham's leaving Egypt to go to the Promised Land. This helped me meet God and nourish my spirituality.



I worked at several parishes over twenty years, and Eunhae School, and now I am working for Seton Family. During my twenty nine years of religious life, I realized that I am a channel to be used for the people of God through my 'yes' to God's call.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Jesus is the only way that I can respond to the call from God. Even today I am surprised to see the small and big miracles that God creates in daily life.

Last spring, a Seton Family member sent a message that her five year old grandson had died of cancer. I went with our sisters to see the parents who lost their child to pray and console them. A few days later, the parents visited us to thank to us, and wanted to donate a portion of the condolence money they received. They told us that their wounded hearts were comforted by our sisters whom they had not met before. This caused me to reflect on being for people as a religious woman in this world. God is always caring about our little kind gestures for the suffering. I have been working for the Seton Family for three years, and I am trying to share the spirituality and life of Mother Seton as a mother and educator. By providing programs, retreats, prayer meetings, and by visiting Seton Family members I hope that I can be a tool of God for His people.



I believe the Lord called me to our community to make me a better person, therefore I am convinced that my life has been blessed in the past and I am sure I will continue to receive many blessings in the future. Thank you!